



배움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
가 온 교육 통신
2024학년도 자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

제 2024-88호
2024. 6. 14.
063)840-8205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소중한 자녀들을 위협하는 성범죄로부터의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의식 정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교, 가정, 사회의 협력과 교육 및 보호가 필요합니다.

가정에서도 자녀와 평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, 성폭력 예방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학생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〈최근 사안 예시〉

- (예1) 경기도 80대 남성이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,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 발생
- (예2) SNS, 오픈채팅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음란채팅을 유도한 후,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금품 요구, 협박 하는 사건(몸캠 피싱) 발생
- (예3) Asked앱(익명 질문 가능 어플)을 통해 성희롱 발언, 음란사진, 가족에 대한 모욕글(패드립) 등을 받는 피해 발생

1. 성폭력은 범죄 행위입니다.

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성적인 것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.

- ▶ 성적인 내용의 말과 행동으로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경우
- ▶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생식기 등 중요부위를 만지는 경우
(친구끼리 생식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장난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.)
- ▶ 디지털 성범죄, 사이버 성범죄도 주의합니다.(인터넷, 유튜브 등 사용 지도 필요)

2. 또래 성폭력 예방

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. 누군가에는 **장난**이지만,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**폭력**이 될 수 있습니다. 아래 상황에서 누가, 왜 불편할지 생각해 봅시다.



똥침하기



생식기 만지기



치마 들추기



음란사진보여주기, 메일 보내기 및 사진찍어 올리기



장난이라며 중요부위를 툭 치고 달아나기

친구가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

누가 누구랑 사귀었다고 소문내기

친구의 신체부위 놀리기

몰래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하기

☞ 뒷면에도 있습니다.

- ▶ 성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해요. (남녀 구분없음)
 - 국번없이 1388 (청소년긴급전화) / 국번없이 전화 117, 문자#0117 (학교폭력·성폭력 신고센터)
 -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899-3075
 - (인터넷) 안전 Dream(또는 검색어 117)으로 신고

3. 올바른 자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수칙

성폭력 예방, 어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
아동·청소년에게 성폭력에 대한 정확하고 연령에 맞는 사전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.

- ▶ **Good Touch, Bad Touch:**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를 미리 알려주기
- ▶ 일상생활에서 'No' 라고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, 자녀의 'No' 를 인정해주기
- ▶ 자녀가 'No'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
- ▶ 아동·청소년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,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항상 주지하기

❖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

 좋은 느낌, 싫은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(가해자 및 피해자 예방)	 자녀와 비밀 공유하기
 인터넷 접속 모니터링, 유해 사이트에 대해 대화	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익히기
 등하굣길 안전한 이동경로, 성폭력 상황 예방 방법 나누기	 아동·청소년용 성폭력예방 교재 함께 읽기

❖ 보호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

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력 높이기	 이웃, 학교, 지역사회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두기
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방문하기	 다른 보호자들과 아동성폭력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 등 부모교육
 마을의 아동안전지킴이 확인 및 참여하기	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녀교육 및 성폭력에 관한 지식과 정보 구해보기

❖ 상황별 성폭력 예방 방법 알아보기

- 도움을 요청할 때 :** 직접 도와주기보다 주위 어른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.
- 위급상황을 가장할 때:** 급히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보다 다른 어른이 더 잘 도와줄 수 있으므로 " 다른 어른들께 부탁해 주세요." 라고 말합니다.
- 친절하게 다가올 때:** 기분 좋은 말과 함께 부탁을 하면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.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"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안돼요" .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.
- 선물을 이용할 때:** 이유 없이 돈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됩니다.
- 아는 사람인 척 할 때:** 나를 아는 것처럼 다가와 무언가를 묻거나 함께 가자고 하면 부모님께 연락하고 즉시 자리를 피합니다.
- 혼자 있을 때:** 만약 혼자 있는데 누군가 왔다면 가족 이외에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하며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.

(출처: 서울특별시교육청, YBM 보건교과서 외)

2024년 6월 14일

익산가온초등학교장